

# 인고의 세월 다 비워내고... 나무는, 소리를 채웠다

## 광주전통문화관 아쟁 만들기 강좌 체험기

잘라 낸 오동나무·벗나무 10년간 깎고 말려 소리·울림 좌우하는 까다로운 대패질 거친 뒤 달군 인두로 표면 지저 마지막 진액까지 뽑아 수강생들 연주법 배워 조촐한 음악회도 계획



김중선씨가 아쟁 속판을 깎아내는 대패질을 하고 있다.

소리를 만드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한 아쟁 제작 과정에 등록한 수강생들 앞에는 잘 마른 나무판이 하나씩 놓여졌다. 국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동나무, 벗나무 등을 잘라낸 뒤 10여 년 넘도록 바, 바람, 햇빛에 놔둬야 한다. 나무가 바짝 말라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얗게 기다려야 한다. 흔히 말하는 '진을 빼는' 작업이다. 나무는 모든 것을 내주고서야 비로소 소리를 낸다.

지난 23일 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 12호 이복수 악기장의 작업실에서는 색다른 연주회가 열렸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아쟁 제작 수업을 들은 시민들이 첫소리를 내보는 연주였다. 송진을 문힌 활대가 조심스럽게 현에 스치자 어릴뜨게나마 '앵~앵~'하며 아쟁이 울었다. 현을 살짝 누른 왼손을 뚝뚝으로 당기자 '애~앵, 애~앵'하며 소리가 더욱 사투졌다.

아쟁 연주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이날 마지막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 7명은 저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수강생은 대부분 정년 퇴임을 하거나 퇴직을 준비하는 중년들이다. 평생 '남의 소리'만 듣고 살아야 했던 수강생들은 자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 나무를 깎고, 다듬고, 짜맞췄다.

나무마다 결과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며 대패질을 해야 한다. 아무리 나무를 잘 다룬다고 해도 쉽게 배울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게 국악기다. 나무를 잘못 다르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그 울림도 깊지 않다. 악기의 외형은 흉내를 내기만 할 수 있지만 소리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중요 공정은 이복수 악기장의 몫이었다. 대패질을 하다가도 악기장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수강생들은 대패에서 손을 떼야 했다. 그만큼 까다로운 공정이었다. 대패질을 한 번 더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악기장의 말을 수 백번 들었지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다.

대패질이 모두 끝난 나무가 악기의 모습을 갖춰간 뒤에도 '나무의 속을 비우는 작업'은 계속됐다. 뜨거운 불에 달군 인두로 나무 표면을 지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난 23일 무형문화재 이복수 악기장(왼쪽)의 작업실에 모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악기 제작 과정 수강생들이 아쟁에 현을 붙이는 마무리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아 있던 나무의 진액이 뽑아져 나오고 나뭇결이 살아난다. 수십 년 말고, 배인 나무의 상처들도 인두질을 통해 아름다운 무늬를 갖게 된다. 거문고와는 달리 울림판을 하나 덧댄 아쟁은 더욱 낮은 음색을 낸다. 나무는 다 비운 뒤에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를 내는 아쟁이 될 수 있었다.

국악기를 만드는 과정은 나무를 다루는 기능이 아니라 소리의 본질을 알아가는 사색 같았다.

이렇게 정년 퇴임으로 교정을 떠난 정혜숙씨와 공직에서 물러난 김중선씨는 첫 악기를 완성했다. 이들은 "현재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자연 속에 집 한 채 짓는 기분으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지정무형문화재 제17호 이애섭 남도의례음식장과 가야금을 연주하는 성진희씨도 아쟁을 만들며 우리 것

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또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병기씨는 국악을 전공하는 딸에게 줄 악기를 직접 만들었고, 바쁜 시간을 쪼개 나무를 깎았던 정선화씨도 소중한 보물을 하나 얻었다.

부끄럽지만, 기자 또한 아이에게 선물할 첫 악기를 이 강좌를 통해 직접 만들 수 있었다.

욕심도 커졌다. 이들 수강생들은 오는 7월에는 가야금 제작에 도전하고, 아쟁 연주법을 배우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아쟁 연주가 손에 익으면 수강생의 시골집에 모여 조촐한 연주회를 여는 것도 이야기 중이다.

이복수 악기장은 "국악기를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직접 악기를 만들어보면 우리 악기와 소리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현대무용단 '베블런' 광주무용제 대상

### 9월 전국무용제 출전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김미숙)가 주관한 '제24회 광주무용제'(전국무용제 시 예선)에서 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 안무 채훈화)이 대상을 수상했다. 연기상은 무용수 김보민(사진)씨에게 돌아갔다. 또 4개의 무용단(김치연무용단, 김현근무용단, 나빌레라예술단,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이 금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인 광주현대무용단의 작품 '베블런'은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명성을 가진 이들이 사회구조의 최하층까지 그 강압적인 영향력을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다룬 작품이다. 그 결과 각 계급의



10월5일까지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4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석한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데 자신들의 욕구와 에너지로 현대무용으로 표현했다.

광주 현대무용단은 오는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4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석한다.

한편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는 지금까지 전국무용제에서 8차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

## 'U대회 성공기원' 서울팝스 광주 콘서트

### 한전 주최, 7월 1일 광주문예회관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갖는다. 7월 1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예회관.

한국전력(사장 조완익)이 주최하는 '희망·사랑·나눔 콘서트'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 관객에게 친숙한 클래식, 가요,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들려준다.

한국전력은 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로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민간 오케스트라와 협약을 맺고 공연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성호씨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롯데



아이의 이발사' 중 '나는 만물박사', 카르멘 중 '허바네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를 들려준다.를 선사한다.

조대권 배부·문의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593-87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봉사자 모집

광주디자인센터는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열리는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15일~11월13일) 행사를 도울 도슨트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도슨트, 행사장 운영 및 관리를 맡을 자원봉사자, 주차요원, 영어·일어·중국어 통역 도우미 등이다. 도슨트와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합격자는 9월 중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양과 분야별 적응 교육 등을 이수한 후 전시간동안 격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도슨트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자원봉사자에게는 중식비·교통비, 활동 증명서가 발급된다.

도슨트의 경우 경력자, 외국어 능력자(해당언어로 전시해설이 가능한 사람) 및 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지역 국제행사 등 자원봉사경력자, 응급 안전 구조사, 간호사자격증 보유자, 외국어 가능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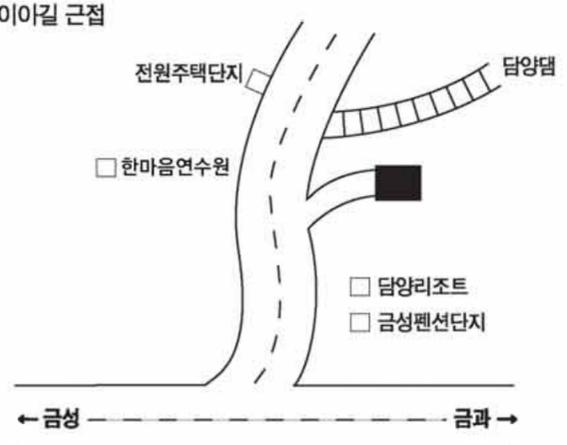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www.gdb.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1-514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야외 결혼식장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하여 운영 하실 분 환영!

■ 주인직매 H. 010-3605-5000